

평화와 화합 위한 한마음

전북 봉축위·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점등 법회 잇따라 개최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전라북도 봉축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세계평화, 민족화합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가 4월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

이 날 점등 법회에는 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도광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진각종, 전대종, 보문종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한광수 전북불교대학 학장, 바라밀 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했다.

점등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기원등을 점등하고 손에 등불을 들고 탑돌이를 가졌다. 탑돌이에 참가한 스님과 불자들은 세계평화와 민족의 화합, 국제민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원했다.

전북 불교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들의 노력으로 세계평화와 7000만 민족의 대화합과 국제민간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기원등을 밝히게 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의 재앙과 무자비한 살상과 테러, 방사능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과 이념갈등,



전북 지역 스님들이 점등법회에 참석해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다.

로 세계평화와 7000만 민족의 대화합과 국제민간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기원등을 밝히게 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의 재앙과 무자비한 살상과 테러, 방사능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과 이념갈등,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때 까지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봉축위원회(위원장 현지)도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

축탑 점등식을 4월 2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을 비롯해 합창단, 불교신행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현지 스님은 "이번 등은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고, 배려의 진심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살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 100여명은 광주KBS에서 시청까지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번 3보 1배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일본에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역으로 매몰된 축생들의 양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소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동자승 삭발식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동자승 삭발식과 세불의식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열렸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20일 한국불교대학 대웅전 4층 대법당에서 스님의 실생활과 참모습을 배우기 위해 단기출가에 나선 동자승 10명의 삭발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대학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22일 장엄물 점등식, 27일 회주 우학 스님 수필 출판기념회, 28일 박수관 명장 초청 법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부처님오신날 행사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에서 '백제의 미소' 선보여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준초이 展>이 대구시 수성구 중동 갤러리 아소에서 4월 19일 개막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한 210x160cm의 대형 사진이 선보인다. 작가 준초이(59·본명 최명준)는 지난 2005년 춘천 박물관장 이내옥씨와 함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백제 유물을 담은 도록 '백제'를 펴내면서 이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판매된 2점 가운데 1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집무실에 걸렸다.

갤러리 아소는 이번 전시회를 아가자기한 야생화와 나무 속에서 '금동미륵보살 반가상' 사진 1점만 선보이는 독특한 형식으로 마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부인사 선덕대왕송모제

신라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25회 선덕대왕 송모제가 4월 17일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됐다.

송모제는 대웅전에서의 헌공의식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송모사, 참봉례, 정제 등의 의식이 선덕대왕의 영정이 모셔진 송모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부주지 무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선덕대왕의 뜻을 받들어 국문을 통합하고 민족문화 보전하는데 앞장서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도불교사암聯, 청도 유등제 개최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광)가 지역 불자들을 화합하고, 외지인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청도 유등제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펼쳐졌다.

'등은 무명을 밝히는 것으로 지혜와 깨달음의 상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도 유등제에서는 1만 여 개의 장엄등이 청도전을 화려하게 수놓았으며 매일 밤 장엄한 전통불교 예불의식과 유등 가요제, 불화 그리기, 감물 염색체험 등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광 약사선원 약사여래불 점안식



전남 영광 불갑면 응봉리에 위치한 약사선원(선원장 혜광)은 4월 17일 '자연석의 약사여래부처님 이운 및 점안 대법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는 자연석에 새겨진 약사여래부처님과 삼존석불상, 해수관음보살상에 점안식을 가졌다. 약사선원은 지난 2년간 선원장 혜광 스님이 기도 정진한 곳으로, 2005년 조경석을 세우던 중 갈라지면서 자연석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상이 출현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선원장 혜광 스님은 "부처님 이운을 통해 영광 불자들에게 큰 희망과 신심을 증장시킬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미륵불 다례재 봉행

범죄피해자 가족동참, 범죄없는 세상 발원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전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홍종갑)와 함께 미륵불 다례재를 봉행하며 범죄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4월 16~17일 송광사에서 열린 이번 다례재에서는 올해 첫 수확한 쌀 차를 미

륵부처님께 올렸다. 특히 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가족 30여명이 참가해 직접 차를 두고 차를 올리는 체험을 통해 범죄없는 세상을 미륵부처님전에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경찰서, 경승 위촉식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가 경승 위촉식을 갖고 경승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4월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관음사 재곤 스님, 동국사 종결 스님, 상주사 도연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은적사 성우 스

님들이 참석했다. 관음사 재곤 스님은 "형식적인 경승 위촉에서 탈피, 내실있는 경승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음으로 군산경찰서 불자회가 조직된만큼 활발한 신생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불총림 백양사,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개최

불교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백양사에서 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4월 20일 교육관에

서 18교구 백양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흥사, 화엄사, 송광사에 이어 전남지역 교구본사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백양사 본사 및 말사의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대사 100가지 음식공양 법회

전남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4월 17일 경내 지장대불 앞에서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법회와 무상 조성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100가지 음식공양'이란 육법공양을 포함해 삶 속에서 나오는 음식의 종류를 전부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식이다. 이날 법회에는 쌀, 과일, 과자, 전, 해산물 등 지역의 특산물 등이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려졌다.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음력 봄과 가을 지장대불과 관음대불 앞에서 불

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100가지 음식을 공양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주지 정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보살님께 100가지 음식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바라는 최고의 공양이다"라고 밝혔다.

정현 스님은 또 신도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100가지의 공양은 세상을 밝히는 100가지의 인연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꺾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퍼내』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머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